

# NEWS 방송계 동향

## 지상파 UHD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11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장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한국언론정보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지상파 UHD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UHD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사, 가전사, 정부 등의 협조가 필요함을 축사에서 밝혔고, 전병헌 의원 역시 지상파 UHD 방송이 콘텐츠와 디스플레이, 방송산업 등을 기초로 관련 산업 부흥의 시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UHD 방송의 미래 가치'를 주제로 UHD가 방송뿐만 아니라 의료, 금융, 보안, 자동차 등 경제/산업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을 제시했고, 두번째 발제를 맡은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UHD 방송은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공적 가치를 근거로 접근이 되어야 하며, 공공서비스로서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특성화된 UHD 채널, 지상파 다채널화 동시 추진, 이에 따른 재정 지원과 로드맵 마련 등을 제시했다.

패널 토의에서 이후삼 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방송사에서는 UHD에 대한 기대가 크며, 추후 UHD와 HD가 다르게 편성되어 UHD 방송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그에 따른 특성화 채널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사람들이 더 나은 성능의 핸드폰으로 바꾸듯이, UHD 방송 역시 자연스러운 기술의 발전이며, ATSC3.0의 개발이 완료되면, IP 방식으로도 지상파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진 SBS 박사는 지상파 UHD 방송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지나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떨어진 직접수신율은 다채널 방송에 대한 규제로 인한 것임을 설명하며, 지상파가 무료편성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UHD 방송 생태계 구축을 위한 TV 안테나 내장, 수신료 정상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혜란 정책위원은 HD 방송의 시작 당시 정부가 약속한 다채널, 쌍방향 방송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후에도 여전히 요원하며, 이 중심에 시청자의 목소리는 없다고 얘기하며, SK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지역 방송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IPTV 역시 결합 상품으로 방송의 가격만 낮추었을 뿐 시청자를 위한 어떠한 서비스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관심이 부족함을 설명하며, 최소한의 서비스 간 균형을 위한 공시청망과 인프라의 필요성과 UHD 전환에서 못 다한 다채널과 쌍방향 방송의 실현을 위해 시청자의 의견 존중을 요청했다.

### 한국방송공학회

#### 호요성 GIST 교수, 제13대 한국방송공학회 회장 선출



한국방송공학회가 제12대 이상길 회장에 이어 제13대 회장으로 호요성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를 지난 정기총회에서 선출했다. 신임 회장은 2016년 1월 1일 취임하며 임기는 1년이다.

### CBS

#### 지역본부 오디오파일시스템 고도화



CBS본사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하여 2014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파일시스템 nCROS가 이제 지역 13개 본부에도 설치된다. CBS 지역본부는 2005년도에 대전본부에서 개발한 Nahollo2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울초 전남본부를 시작해서 포항본부가 nCROS로 교체됐고 올해 12월에는 광주본부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이로써 전국이 단일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며, 향후 통합 과정을 통해 전국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를 본사에서 관리 및 가공하여 유통할 예정이다.

## EBS

### EBS, 시청자들이 직접 뽑는 '시청자상' 투표 이벤트 진행



EBS는 시청자들이 직접 EBS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EBS 시청자상' 투표를 실시한다. 'EBS 시청자상'은 시청자와 많은 교감을 나눈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격려하고자 기획됐다. EBS 시청자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작은 'EBS 다크프라이미 - 감각의 제국', '극한직업', '달라졌어

요', '부모-이슈N맘', '융합형 지식탐험 링크'(가나다순)이며, 12월 6일(일)까지 EBS 홈페이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 KT스카이라이프

### KT스카이라이프, 세계최초 실시간 종량제 광고 ARA 론칭!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종량제 광고 ARA 설명회'를 열고, 90개 채널(지상파 및 해외채널 제외)에서 보이는 스폿 광고에 ARA(Advanced Realtime Advertising)를 도입하였

다. ARA는 KTH 빅데이터 솔루션 (DAISY)을 활용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실시간 채널 종량제 광고'로 가입자 시청 정보를 초 단위로 분석하고 해당 광고를 100% 시청한 경우에만 광고료를 정산하는 'CPPV (Cost Per Perfect View)'를 적용했다.

## MBC

### 2015 본·계열사 및 관계회사 기술책임자 회의 열려

11월 1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15 본·계열사 및 관계회사 기술책임자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본사와 17개 계열사, MBC플러스, MBC C&I 등에 소속된 기술책임자 총 31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사와 각 계열사가 추진하고 있는 뉴미디어와 방송시스템에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본사와 각 계열사의 추진 상황에 대해 들어보고 논의하며 이를 통해 MBC의 건설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 KBS

### KBS, 2015 방송기술직 신입사원 26명 최종 발표

KBS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2015 신입사원 정기공채 결과를 지난 18일 최종 발표했다. 이 중 방송기술 신입사원은 전국권 15명, 영남권 3명, 호남 제주권 3명, 충청강원권 3명, 방송기술연구원 2명, 총 26명으로, 임용예정일은 2016년 1월 1일이다.

## 아리랑국제방송

### 영어뉴스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뉴스 휴대폰 문자서비스(SMS)'가 실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아리랑TV에서 제공하는 일일 주요 뉴스브리핑 (Arirang News Headline) 및 방송 프로그램 안내, 긴급 재난상황 속보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 BBS

### BBS,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BBS는 지난 11월 8일 서울 본사 다보빌딩 2층 강의실과 3층 법당에서 서류전형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방송 실무를 논하는 2차 소양테스트를 치렀다. 그리고 11월 16일 관리직 인턴, 11월 17, 18일에는 방송직과 지방직 인턴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3차 면접을 거쳐 불교적 소양과 다기능 역할을 하는 신입인턴사원을 선발하였다.

## YTN

### YTN,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YTN은 도로교통공단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YTN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공단 측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출연시키는 등 콘텐츠 교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OBS

### OBS, 기술인협회 가을 산행



지난달 21일 OBS기술인협회 정기 가을 산행이 인천시 계양산에서 있었다. 주말마다 비가 내려 걱정이 많았는데 화창한 날씨에 등산하기 너무 좋은 가을의 끝자락이었다. 방송 현업현장을 떠나 함께한 협회원들은 모처럼 환한 웃음과 땀으로 소통하며 서로를 격려했다.